

# 한·미 우정, 민주성지 광주에서 활짝 꽂피우다



5·18묘지·시립박물관 등 견학

“김치 맛 일품...돌아가기 싫어요”

■ 21~28일 광주 방문 美 ‘우정의 사절단’ 도리스 슐러 단장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로 마치 우리 집에 와 있는 편안한 기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우정의 사절단(The Friendship Force) 도리스 슐러(여·57·사진) 단장은 지난 21일 광주역에 도착했을 때 회원들의 깜짝 환영에 놀랐다며 “그렇게 큰 꽃다발은 처음 받아봐서 영광이었다”고 웃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럽 21명의 회원은 광주 우정의 사절단 클럽(회장 유희숙 목포대 교수)의 초청으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광주 회원들의 집에서 지내며 5·18 국립묘지·시립박물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1977년 미국의 짐 카터 대통령이 재임 당시 만든 우정의 사절단은 전 세계 55개국 350여 개 클럽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슐러 단장은 “한국 오기 전에 광주 교류 단장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광주의 음식과 기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와서 직접 보

니까 아름다운 건물과 높은 기술력에 놀랐다”며 “특히 김치 등의 음식 맛이 일품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럽 단장은 1년에 한 차례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초청도 하며 세계 각국과 우정을 기워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여 년 전 서울과 부산, 광주 등 3개의 클럽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슐러 단장은 “광주에 빨리 와보고 싶었는데 막상 머물러보니 다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아늑하다”며 “한 번 다녀간 나라는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으로 슐러 단장은 “우리의 활동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미국 우정의 사절단 회원 21명이 지난 22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문 앞에서 광주 우정의 사절단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발레스타 김주원씨 상반신 누드 사진 공개

## 동생 이어 형도...장흥 오지마을 “경사났네”



한다는 입장을 품위를 지켜야 할 발레리나로서 과한 것 아니냐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혜식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는 “발레계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라면 예술로 볼 수 있다”면서 “김주원씨의 사진을 직접 봤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장동면 만년리 이선기·형곤군 형제 司試합격

장희의 오지마을 출신 형제가 사법 고시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장동면 만년리 출신인 이선기(26·전남대 3학년 재학)·형곤(25·중앙대 2학년)군.

형곤군이 지난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최근 발표된 제 49회 사법시험에서는 형 선기군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전교생이 10여명 남짓한 벽지분교(지금은 폐교)를 거쳐 중·고등학교 때 까지 과외지도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공부에만 전념해왔다.

두 형제가 본격적인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한 것은 군대를 제대하던 지난 2004년부터.

이들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학을 함께 했다.

시험 준비 2년만인 지난해 1·2차를 동시에 합격한 형곤군은 군사집 부대의 배려로 틈틈이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선기군은 전남대에서 학원비와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한차례 이상 교수들이 신림동 고시촌을 방문해 지도했던 것이 효과를 보았다는



〈이선기군〉



〈이형곤군〉

것.

아버지 이학준(56·장흥 용두농협조합장)씨는 “먼저 남을 배려할 것과 한족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을 넓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두아들에게 강조해왔다”며 흐뭇해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 광주 북구청-광주 교육대, 관·학 교류 협약 체결

## 광주 보건대 안경광학과, 창립 20주년 ‘동문의 밤’

## 광주 동강대 노인복지과 생활사진전 개최



광주시 북구청(구청장 송광운)은 22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임현모)와 교육·문화시설 상호사용 및 인적·물적 지원의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보건대학 안경광학과(학과장 심문식교수)는 23일 학과 창립 20주년을 맞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에서 동문·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동강대 노인복지과(학과장 김숙일 교수)는 24일 광주 동강대학 체육관에서 ‘제13회 생활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날 사진전에는 ‘노인’을 주제로 한 작품 58점이 전시됐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황정례씨 아들 이충권군 신경우(무안교육장)씨 딸 소원양=27일 (토) 오후 1시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예식홀.

▲최정권(대한일보 이사)씨 장남 재석(대덕전선)군 황경연씨 장녀 육윤양=27일(토) 오후 1시50분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신태균(영암 문화원장)씨 장남 재현군 천시욱씨 딸 주희양=28일 (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피로연 23일(화) 영암읍 중원회관.

▲김용철씨 막내 판종군 이행준 씨 차녀 희송양=28일(일) 낮 12시 10분 천주교 학운동 성당.

▲심용식씨 차남 우현(한국건설) 군 김재일(영진세라믹 차장)씨 동생 애수(현대병원 수간호사)양=28일

(일) 낮 12시30분 교원공제회관 3층 웨딩홀.

▲이정철씨 장남 명규(현대개발 건설 대리)군 서용기씨 장녀 미영양 =28일(일) 낮 12시30분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김선표씨 장남 진일(곡성상휴 계소 관리과장)군 광동근씨 장녀 숙희(주암휴계소 판매원)양=28일 (일) 오후 1시 광산구 콜럼버스 웨딩홀 2층 무궁화홀.

▲송명기(용산전력 대표)씨 장남 회중군 정찬길(서울 월곡초 교사)씨 장녀 혜진양=28일(일) 오후 1시10 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주영찬(담양 부군수)씨 차남 창현군 고하선씨 차녀 수진양=27일 (토) 오전 11시45분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 특실.

▲홍석태(전남도청 복구지원과장)씨 차남 영훈(롯데 코리아 세븐(주) 지원팀 계장)군 김영석(영전설

### 동창·동문회

▲비아중학교 총동문회 칭립 발기인대회=25일(목) 오후 7시 광주 과학기술원 옆 명가원. 016-650-4533

▲광주 남중 21회(회장 오세종) 월례회=26일(금) 오후 7시 무진장 해물탕. 375-3331

▲옥과종 개교60주년 기념 졸업생 조정 체육대회 및 총동창회 결성식=26일(금) 오후 10시 도교운동장. 010-5413-8255.

▲재광 홍일고(회장 김철남) 정기총회=26일(금) 오후 7시 히딩크호텔 6층 사롯데홀. 011-640-8430

▲조선대 장성 동문회 칭립총회=26일(금) 오후 7시 장성군 성산한우촌. 017-605-6454

▲담양 고서초교 제 49회 동창회(회장 김성한) 모임=26일(금) 오후 7시 남도보쌈. 011-649-5005

▲최민하씨 장남 건상(송정농업 협동조합)군 박홍남씨 장녀 선영(광주 신세계 홍보실)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7시 한우명가. 011-612-0114

▲재광 문예중·고 기축 체육대회 =27일(토) 첨단 전자공고. 011-642-7050

▲학다리고 22회 동창회 정기총회=27일(토) 오전 11시 함평 응천사. 011-604-0063

▲전남대 환경공학과 총동문회 모임=27일(토) 오후 5시 하딩크호텔 6층 사롯데홀. 227-8500

▲담양 창평초교 제 62회 동창회(회장 김승천) 모임=27일(토) 오후 7시 흥동동 한솔회관. 011-625-5656

▲수창초교 총동창회(회장 장승우) 수창인 한마음 축제=28일(일) 오전 10시 모교 강당. 514-7770

▲담양 남초교 제 27 회 동창회(회장 박옥희) 모임=28일(일) 오전 10시 담양남초교 강당. 011-9091-0316

### 종친회

▲재광 청풍김씨 화수회(회장 김유방) 모임=25일(목) 오후 7시 남도보쌈. 011-649-5005

### 향우회

▲재광 원도군 금당면 향우회(회장 강대형) 정기총회=27일(토) 오전 11시 중심사 파티와식산업. 011-628-2348

▲재광 해남군 향우회(회장 김재우) 기축 체육대회=28일(일) 오전 9시 광주월드컵 보조 경기장. 011-627-2015

### 모임

▲광주·전남 ROTC 제 16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26일(금)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고품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장례장 멋 석기겠습니다!**  
-대표 구찌 팔-

**송정장례식장**  
T.062-941-4400  
**광주 송정장례식장**

오후 7시 교보빌딩 10층 리더스 클럽. 529-2944

▲재광 순천중고 테니스회 월례 대회=27일(토) 오후 3시 신동고 테니스코트. 016-652-8040

### 부음

▲이창규(무등상호자축은행 회장)씨 별세. 형인(무등상호자축은행 대표이사)·형철(송원대 교수)씨 부친상 진영(법무법인 을곡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춘택(이춘택병원 원장)씨 백씨상 강형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발인 25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20-3352



## 외국인 2명 첫 백두대간 종주 도전

셰퍼드·도치씨 내달 10일까지 670km 대장정

외국인 2명이 백두대간 종주에 나섰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산의 이름다음을 알리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뉴질랜드인 로저 세퍼드(41·사진 원쪽)씨와 앤드루 도치(30)씨는 지난 9월 2일 자리산을 출발해 다음달 10일 설악산에 이르기까지 70여 일에 걸쳐 백두대간 670km 구간을 종주한다.

이번 백두대간 종주는 뉴질랜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중인 세퍼드씨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세계관광기구스포츠재단(UNWTO ST-EP Foundation)에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평소 산을 좋아했던 세퍼드씨는 “한국의 산을 종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재단 이사장인 도영실 대표가 한국의 산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선뜻 후원자로 나선 것.

즉시 ‘2007 백두대간원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세퍼드씨는 인터넷 산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영어교사 앤드루 도치씨와 함께 종주에 나섰다. 종주는 다음달 10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 고은 시인, 캐나다 ‘그리핀 평생공로상’ 수상